

서울대 강의 - 배움이 삶으로 체화되는 교육(오승훈)

1) 인생의 좋은 안내자, 참 스승을 만나 교사의 길을 걷게 되다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누구나 잊지 못할 선생님 한 분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제게도 참으로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중 한 분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장녀인 저는 집안 걱정과 부모님 걱정 때문에 교실에 앉아 있어도 학업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습다.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마음속 우울은 깊어졌습니다. 결국 학교를 자주 빠지게 되었고, 일할 곳을 찾아 헤매며 학교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을 지킬 방법은 돈을 버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학업을 포기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공장에 취직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친구를 통해 제 상황을 알게 된 담임 선생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밥을 사주시며 하신 말씀은 제 인생의 길이 되었습니다. “네가 돈을 벌어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뜻대로 하거라. 그러나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공장에 가서 얼마나 벌수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안전하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겠니?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너는 똑똑한 사람이니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 짧았던 제 생각의 너머를 사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일단 고등학교는 졸업해야겠다고 생각해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자존심이 상할까 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공부하는데 필요한 문제집과 자료들을 챙겨주셨고 대학진학을 위한 다양한 조언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더욱 힘들어지는 집안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부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속적인 선생님의 도움으로 대학진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조언을 해주고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선생님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놓지 않고 인생의 길을 잘 찾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기다려 주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야단은 쉽게 치셔도 학생이 왜 그러는지 속내를 들여다보며 상황을 헤아려 주시는 선생님들 또한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단에서 만난 많은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이 버팀목이 되어 주신 선생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실천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은 제 평생의 교육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고마움은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저를 바로 세우는 삶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가르침을 31년 동안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무슨 곡절이 있을거야”, “저 아이가 왜 그랬을까?” 나무라기 전에 마음을 따뜻하게 들여다보며, 때론 준엄하게 꾸짖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칠 수 있도록 품고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며 방황하는 아이들에겐 다 그럴만한 삶의 이유와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방황도 다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교육철학과 교육 방법 덕분에 학급 운영과, 교과 수업, 학년 부장, 학생부장, 학생 인권 자치부장 등의 일을 좀 더 수월하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연민과 사랑으로 아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맥락과 누적된 결핍의 과정들을 헤아리며, 아이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신명 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식도 키우고 의식주도 해결하며, 또 교사로서의 삶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며 누군가의 인생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인생은 없을테니까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은 늘 저에게 선생님이 늘 천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가르치고 배울 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이들이 저와 상담을 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배시시 웃으며 희망을 싹 틔울 때 그 기쁨을 생각하면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하늘이 저에게 준 직업임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힘들지 않고 어떻게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는지요.

제 교육철학을 존중하고 열심히 사는 저를 아껴주시던 많은 동료 교사와 학부모님들, 교장,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현재의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는 이 나이에 아이들을 향한 이런 열정과 연민과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교사를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성장하며 어려울 때 선생님께서로부터 받았던 지속 가능한 도움과 사랑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때문이라고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기 전에 다짐했던 신념과 철학이 멈추지 않는 열정과 정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성숙하려면 충분히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품어주고, 버텨 주고,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자극을 주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 영국의 소아과의사, 아동분석가 위니캣 -

“많은 아이들은 자신의 그릇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훨씬 더 많이 격려하고 응원하며, 어른답게 아이들을 대하고, 손을 내밀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 별 성장학교 교장 김현수 -

‘위니캣’ 과 ‘김현수’ 선생님의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인간적이며 존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이 위와 같은 시선으로 아이들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춘기의 절정에서, 다양한 발달과정을 거치며 힘겹게 사는 아이들의 마음을 ‘위니캣’ 과 ‘김현수 선생님’ 처럼 따뜻하게 헤아리고 다시 힘을 내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남아 있는 교단에서의 삶 역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사랑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사연으로 각별하게 오래도록 인연을 맺었던 아이들 얼굴이 제 마음에 머물다 갑니다. 뜻을 같이하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함께 고군분투했던 동료 선생님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저의 성장과 삶의 결을 잘 헤아려 따뜻한 품성을 가진 교사가 되게 해주신 학창시절의 고마우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깊어져 갑니다.

2) 기다림과 대화, 돌봄과 치유가 더 많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제 인생의 스승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첫 발령을 받게 된 저는 학교와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갔을 때 교단의 모습은 제 기대와 많이 달랐습니다. 5년 넘게 있었던 첫 발령지에서 가장 놀랍고 힘들었던 것은 순종에 길들여진 아이들의 무기력한 눈빛과 통제와 지시로 일관하고 있는 학교 체제, 교장선생님께 집중된 권한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권위에 아이들은 주눅이 들어 있었고, 획일적인 교육과 폭언과 체벌 앞에서 아이들의 인권은 무너졌습니다. 교사 역시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첫 새내기 교사로서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슬펐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게 교육의 일상이라면 교육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찌면 우리 모두는 아이들에게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급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의 무기력을 극복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즐겁게 배움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까? 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혁신교육에서 실천하고 있는 학생중교육과, 회복적 생활지도와, 배움이 삶으로 만날 수 있는 다양성 교육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있는 선생님들과 마음을 나누고, 책을 읽고 공부하며 차근차근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의 전문적학습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임으로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과, 아이들의 상처 회복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가정방문을 해보니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느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해보기도 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생활하는지, 매일 같이 싸우거나 사고를 치는 아이들의 마음속 블랙박스까지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가정방문을 하고, 부모님과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유 없는 반항이나 일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방황하던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규교사인 저는 그 학교에서 가장 많은 가정방문과 마음 열기 상담을 하는 열정의 아이코인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 알콜 중독자인 아버지를 지키며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 도시에서 살다가 할머니에게 보내져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외로운 아이까지, 다양한 상황과 처지에 놓인 아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공부보다 그 나이에 필요한 심리적, 물질적, 정서적 안전망이었습니다. 지금의 학교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공감하며 헤아려 주고,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는 남겨서 함께 공부도 하고 텃밭 농사도 지었습니다. 해가 지면 같이 밥도 지어 먹으며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곁에서 오랜세월 함께 했습니다. 철이 없어 일탈하고, 사는 게 힘들어 좌절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불안한 아이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교사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앓았습니다.

아이들 문제를 혼자 감당하기 버거울 때는 늘 교사가 되고자 했던 제 초심을 돌아보으며, 저를 교사가 되게 해 주셨던 참된 스승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동료들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들은 사회구조의 산물이기도 하기때문에, 학교에서 교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사이기에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은 많기도 합니다. 수업을 통해, 학급운영을 통해, 생활지도를 하면서 교사가 가진 그릇만큼 아이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어떤 인품과 철학을 가졌느냐에 따라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듯이,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사인가에 따라 만나는 아이들의 삶은 다양하게 꽃피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한 인간이 가진 권리에 대한 존중과, 아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따뜻한 헤아림, 때론 준엄한 꾸짖음과 기다림으로 아이들이 가진 가능성을 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철학과 신념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좋은 교육이며, 지혜롭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끝없는 자기 성찰과 공부를 통한 사유로부터 완성되어 진다는 것을 첫 발령지에서 배웠습니다.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교육이란 무엇이며, 교사란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동료선생님들과 함께하여 더 좋은 문제 해결의 답을 찾았던 경험은 협력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현장에서 그동안 함께했던 교육 활동으로 아이들은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때의 일을 떠올리며 힘을 내고 있으며, 그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스승이자 선물이었다고 회고합니다.

3) 노작교육으로 다시 찾은 아이의 선한 본성과 환한 웃음

지역 간 이동을 통해 고양시와 과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역은 아이들의 행동유형이 다양했으며 무기력이 더 심각했습니다. 학생 간 왕따와 학교폭력이 심했으며 가난으로 인해 무너진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방황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입시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 한명 한명의 마음을 헤아려 품고 기다리며 지도하기엔 여력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너무 바쁘게 돌아갔고 학생 수는 많았습니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다리가 부러진 아이, 선배부터 후배까지 고리처럼 연결된 돈 모아오기 상납구조, 본드 흡입과 텐트 혼숙에 술 담배까지, 매일 같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복합적 결손에 노출된 아이들의 문제였기에 아이가 처해 있는 환경적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문제는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 수습하고 퇴학을 시키는 게 문제 해결의 코스였습니다. 퇴학당한 아이는 학교 부근을 배회했고, 학교 안의 친구, 후배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가 학교 밖으로 쫓겨났으니 그 나이에 어디 다른 곳에 가서 할 일도 없거니와 부모 역시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결국 아이는 아이대로 상처와 분노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문제행동의 아이를 학교 밖으로 추방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겐 상처였고, 교사에겐 아픔이었습니다. 인근의 대부분의 학교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고심 끝에 교장 선생님과 뜻이 있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과 의논해서 문제행동의 아이들을 퇴학시키는 대신 노작교육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정서를 순화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산과 공간, 인력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살리기 위해 마음을 맞대고 함께하다보니 길은 있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땅도 빌려주셨고, 뜻이 있는 선생님이 함께해주셔서 각 반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모아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밟으며 온갖 야채를 심고, 고구마와 감자, 옥수도 심었습니다. 방과 후와 주말을 이용해서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볼 수 없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욕하고, 침 뱉고, 친구 괴롭히고, 수업 방해하며, 옆드려 자는 게 일상이었던 아이가 순식간에 흙을 고르고 이랑을 만들며 폼나는 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교실에선 늘 얼굴이 경직되어 있었고, 나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친구와 선생님들을 대하던 아이가 싱긋 웃었습니다. 밭갈이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니 수줍어하며 “이런 건 껌 이에요” 하며 씨익 웃는 모습 앞에 나는 울고 말았습니다. 이런 찡땀어리 같은 아이를 괴물이라 몰아붙이며 학교 밖으로 내 보낼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니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괴물이 되기까지 어찌 이 아이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요? 고추 대를 세울 때는 혼자하기 어려우니 자연스럽게 서로 양숙이던 아이들이 함께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볼 수 없었던 장점과 아이가 가진 선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아이들이 심은 야채가 크기 시작하고 결실을 맺자 각자 집으로 가지고 가서 식탁 위의 반찬이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말엔 부모님도 함께 참여하면서 결국 아이들이 심은 고구마와 감자는 지역의 아동센터와 노인정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설 새 없이 욕을 하고, 수업시간엔 엎드리기 태반이며 선생님께는 맞서서 대들던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들이 환하게 웃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삼질을 잘하는 아이, 고추대를 반듯하게 잘 세우는 아이, 상추를 잘 따는 아이, 경험한 것을 글로 잘 쓰는 아이까지 수업시간에는 보이지 않던 장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공립현대안중고등학교나, 혁신학교, 오딧세이학교, 꿈틀리인생학교 등에서 하고 있는 ‘배움이 삶으로 만나는 실제적인 교육’을 2000년도 초반에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우리 아이들이 가진 선한 본성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은 학교라는 획일적인 틀과, 입시를 향해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게 해야 하는 현실과 무너진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들판을 달리며 들꽃을 보고, 합성을 지르며 한없이 웃고 울었던 아이들과의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마을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함께했던 연대의 프로젝트는 지금 큰 흐름이 되고있는 마을과 함께하는 아이 살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더욱 안전하고 체계 있게 노작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학교로 옮기면서도 노작교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적에 첨부했듯이 명품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학교에서 정서 순화와 인성교육으로 노작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훗날 아이들은 찾아와 마음의 평화를 주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노동이 끝난 후 함께 먹었던 도시락의 꿀맛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비빌 언덕이 없었던, 여전히 지금도 가난한 우리 아이들은 삭막한 도시에서 힘겹게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장성중학교에서 이와 같은 노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꽃을 가꾸고 야채를 심고 씨앗을 뿌리며 가정에서, 학교에서 만난 아픔과 쓸쓸함과 상처를 더불어 함께 잘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결코 문제아는 없습니다. 있다면 안전망이 없이 잘 보호받지 못해, 수많은 결핍과 서사에 의해 무너진 상처와 아픔들이 커커이 쌓여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들이 규정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잘 돌보고 지키며 반듯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게 부모와 교사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이번 주에 아이들과 요리를 하며 도시락 배달을 할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저절로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돌이켜 보면 교사로서의 제 인생의 화양연화는 바로 이런 아이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훌륭한 교장, 교감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료 교사와 아이들 덕분에 신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4) 자신의 삶을 표현하도록 해준 연극이 변화시킨 아이들

시도 간 전출로 세 번째로 옮긴 학교는 양극화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영어, 수학을 우열반으로 나누어 가르쳐야 했습니다. 우열반은 그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계층과 경제적 상황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영어·수학 선생님들은 열반 말기를 꺼려하셨습니다. 수업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야 할 공부가 너무 많아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며 사는 게 일상이었기에 스트레스 노출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안전망이 없는 아이들은 무기력과 일탈 속에서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 특별한 탈출구가 없었던 아이들은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일탈을 통해 보여주었고, 자신보다 약한 고리에 있는 친구와 선생님들에게 풀었습니다. 열반 수업을 하는 저도 참으로 힘들고 안타까웠습니다. 수업을 할 수 없는 교실 안 풍경도 속상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말고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는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은 어른도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 채 아이들을 방치했습니다. 오래전에 공부를 놓아버린 아이들은 하루 종일 교실에서 견뎌야 하는 게 힘들어 온갖 문제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특별한 대안을 갖지 못한 채 통제와 규율로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학폭과 선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은 증폭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견디기 힘들었던 교사는 병가를 내고 학교를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수도 없이 고민하고, 방법과 지혜를 찾아 여기저기 대안교육 현장을 순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아이들만 야단치고, 선도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각 반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무엇이 그렇게 너희들을 힘들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학교가 답답하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다른 애들도 다 떠드는데 나만 야단친다고 속상해 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심정에 공감이 갔습니다. 연극반 동아리를 만들어 줄 테니 너희의 답답함을 연극을 통해 마음껏 표현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워낙 무기력한 아이들이라 “그것도 싫어요” 할까 봐 걱정했는데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은 저를 잘 따랐습니다. 아이들 각자가 가슴에 묻고 사는 블랙박스를 꺼내게 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대본으로 써 보게 하였습니다. 대본을 쓰기 위해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가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들 말하고 싶었지만 쉽게 꺼낼 수 없었던 마음속 이야기들이 강물이 되어 흐르고 그 강물은 출렁이며 멋진 대본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신만 불행하고 힘든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의 삶 역시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딱히 할 것이 없어 학교 밖을 전전하다 집단 패싸움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던 아이들이 시청각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중 가장 일진이라는 아이가 연극반에 들어오니 너도나도 다 연극을 하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처음엔 긴 시간 동안 집중하는 걸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서로 배역을 정하고, 대본을 외우고 무대에서 대사를 치면서 까르르 깔깔 ~~하하 호호 다들 하나가 되어 협력하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전국대회 준비를 위해 매일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변해가는 아이들을 보고 교장·교감선생님은 금일봉을 주시며 아이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시간과 다르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하다며 돈을 모아 70만원정도의 식비도 지원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던 정말 어른다운 교장, 교감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포기했던 부모님들은 점점 변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서로 돌아가며 밥을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아이들이 변하니 부모도 변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 대상, 전체 학생 대상으로 공연을 여러 차례 하면서 아이들은 점차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저를 아껴주셨던 학생부장님께서 “당신이 학교생활지도를 다 했습니다.”, “저렇게 힘든 녀석들을 끌고 애썼어요” 하시며 칭찬해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지하고 믿어주고 끌어주니 기대했던 것 이상의 변화를 보여준 것입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수상해 400만원이라는 상금도 받았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와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힘들지 않느냐고? 힘들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은 스승을 통해 배웠고, 교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아이들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은 영혼이 맑고 깨끗한 우리 아이들로부터 매일 같이 “선생님 사랑해요” 를 듣고 사는 저는 아플 겨를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주는 선한 미소와 사랑이 제 인생의 보약이기 때문입니다.

5) 학생자치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치활동 전도사로서의 삶

경기도 혁신교육이 시작되며 현장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학교 민주주의와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규정이 조례로 만들어지며 체벌과 벌점제가 사라지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통제와 지시의 대상이었던 학생들을 교육의 중심에 놓고 자율과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들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현안 문제를 교육 주체가 동등하게 민주적 합의와 절차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놀라운 상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변화는 더디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철학에 따라, 교사의 인식 정도에 따라 학생자치 실태는 차이가 났습니다.

여전히 위계와 통제로 아이들을 대하고, 자치활동에 제동을 거는 학교도 많았습니다. 자치활동 업무를 맡았던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뜻이 맞는 선생님들과 혁신교육철학과 학생자치에 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의 시작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학생자치활동 지원으로 이어졌고, 민주시민과와 연계하여 ‘참소나무’라는 학생자치활동 매뉴얼 등 총 네 권을 공동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치활동의 실제적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자치담당교사, 학생회 임원 대상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학생들은 강의 후 저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주인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주셔서 제대로 학생회 활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학생을 학교의 공동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시작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교의 주체라고 지지받거나, 주인으로 살아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살고 싶은 의지도 부족하며, 주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교사들이 있기에, 혁신적 가치와 철학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실천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는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학생자치를 위해서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며 교육 주체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이 스스로 학교의 주인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좋은 배움과 실천의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혁신의 철학과 사례를 공부할수록 학생자치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선생님이 정해진 틀에서 눈치 보고 사정하며 하는 자치가 아니라 당당하고 책임 있게 주도성을 가지고 기획하고 실천하는 자치가 될 수 있도록 공동주인의 지위를 인정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학생이 주인으로 당당하게 자기 뜻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행복입니다.

6) 직무연수와 연구회 운영으로 교사 철학정립과 성장을 견인하며 학교 현장을 지원하다

진보 교육감 1기, 혁신교육이 시작되던 해 학교 현장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성적비관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교권 추락, 교사와 학생 간 다툼과 불화로 인한 갈등의 증폭 등으로 교사도 학생도 학교생활이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상처받은 교사들은 이직을 생각하고,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면등교가 이어지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업은 힘들었고 생활 지도는 더 힘들었으며 업무는 과다했기에 교사들은 모두 헉헉거리며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는 교사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학생 역시 선생님들과의 갈등으로 상처를 받아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공교육 안의 질곡은 점차 심화되어 갔습니다. 이계삼 선생님의 ‘교육 불가능에 대한 사유’라는 책을 보면 학교 안의 서글픈 현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저는 2학년 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2학년 담임 선생님 중 한 분은 온갖 악동 노릇을 하는 아이들을 견디다 못해 질병 휴직을 해야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학급에서 수업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교감 선생님께서 수업을 지켜보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급은 유난히 편모와 편부 등 결손가정의 자녀가 많았습니다. 경력 5년차의 선생님이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인수인계 후 학교를 떠나는 날 식사를 하며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원인과 책임을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점점 이상해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할 수만 있다면 학생지도에 대한 맞춤형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눈물 섞인 하소연과 고백을 들으며 선배교사로서 후배 교사를 잘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이런 학교 사례가 속출하자 경기도에서는 대안으로 교사 스스로 필요한 것을 기획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교사 맞춤형 연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혁신 교육이 시작되며 진보라고 하는 교육감이 잘한 일 중 첫 번째가 이 연수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뜻을 함께했던 선생님들과 현장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연구회를 조직하고 현장에서 말도 못 하고 힘들어하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교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질 좋은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기 위해 연구회 선생님들은 주말도 쉬지 않고 모여서 혁신 교육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준비한 덕분에 좋은 연수프로그램이 기획되었습니다. 학교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에워싸고 있는 한국사회의 구조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하며, 특히 경기 교육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이들 문제는 환경과 사회구조의 반영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교감을 형성하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교사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교육철학과 신념을 바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사의 바른 세계관이 좋은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주관하는 맞춤형 연수가 250개가 넘었습니다. 그중 우리 연구회가 준비한 연수는 연수원에 개설하면 인기가 많아 금방 인원이 넘치곤 했습니다. 60시간 직무연수는 운영도 쉽지 않았지만 학교일을 마치고 매주 공부를 해야 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시간은 뜨겁고 진지했습니다. 한번 도 들어본 적이 없는 좋은 연수를 들으며 교사들의 가슴은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야’, ‘나의 부족한 지점이 이거야’, ‘나만 힘들었던 것은 아니었네’,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 라고 피드백을 하며 선생님들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학교가 힘들어, 조만간 그만두기 위해 사표를 써 가지고 다니던 중 이 연수를 들은 후 사표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10년 이상을 교사로서 더 치열하게 살게 해준 그 연수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연구회와 연수에서 선생님들은 학교 안의 문제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유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끝없이 토론하였습니다. 다른 학교의 좋은 사례를 보고 배워가 적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학생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생기면서 아이들을 통제와 지시가 아닌 자율과 존중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인식의 변화는 실천으로 변하면서 저절로 아이들과의 관계형성도 좋아졌습니다. 학교 안의 부당한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용기도 배워갔습니다. 이런 고무적인 변화는 모두 함께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30시간 직무연수를 진행하며 학교구성원의 올바른 교육철학 다지기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전신으로 교사 성장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연구회 선생님들은 연수기획과 운영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기 혁신학교 인권실천부장으로 학생자치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자치를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다

혁신학교에 근무하며 학생자치를 담당하는 인권실천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자치문화를 활성화시켜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학교의 학생자치 상황을 진단해보니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혁신학교 8년 차 임에도 불구하고 학급회의가 교육과정에 없었습니다.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운영위원회 참여, 정기적인 대의원회의실시, 학교기구의 학생 공동참여,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을 통한 학급회장단 선출,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규정에 기반한 생활규정개정, 학부모와 학생자치의 연계, 학생회를 넘어선 전체 학생들과 유기적 연결을 통한 학생자치 활동의 확장, 교육공동체의 합의와 토론을 통한 협약 정하기 등 많은 일 들을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학교구성원의 학생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교직원 대상으로 학교 민주주의와 학생자치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여 혁신 교육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각 주체의 교육에 대한 약속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교육과정에 학급회의를 편성하고 학생들의 자치의식 함양을 위해 경기도 학생 자치활동 지침과 학생 인권 조례 규정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자치란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누고 토론하며 각 부서 연간계획 수립과 발표를 통해 학생회 연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학생 자치활동이 잘 되기 위한 기본은 학생들 스스로 자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해 학생자치가 잘되고 있는 학교의 회장단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다른 학교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며 아이들은 스스로 우리 학교의 학생자치 활동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아래로부터 학급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학생회끼리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생회는 학급회의가 잘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했고, 학급회의 활성화를 위한 회의방식과 회의주제 안내문제, 학급의 의견 수렴 후에 반드시 해야 할 대의원회의 심의과정과 교장선생님과과의 간담회를 통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심도 있게 고민할 만큼 성장해갔습니다. 학생들과 저는 힘들었지만 신바람이 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학생자치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육주체의 올바른 철학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학교장의 철학과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렇듯 공동체 교육 활동이 민주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교 전체를 이끌어 가는 교장 선생님의 올바른 철학과 인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은 30년 교직 생활 기간에 만난 분 중 몇 분 안 되는 가장 철학 있고 어른다운 분 중의 한분 이셨습니다. 학생들은 수시로 교장 선생님과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현안문제를 공유하고 협의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학교의 이러한 지지와 성취로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고 주도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자치가 아니라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모이고 토론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주인임을 알게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쉬지 않고 원인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잊지 못할 활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회와 학부모회가 연계한 연말 학교축제 때 바자회를 통한 지역 독거노인 돕기 부스운영이었습니다. 학생회는 오래전부터 학급회의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바자회 물품을 기증받았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부스운영을 기획하고, 학부모님들 역시 성금 모금을 위한 음식판매를 준비하셨습니다. 학부모와 학생회 임원들은 지역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만나 바자회 수익금 200만원을 기부하면서, 지역의 독거노인 실태를 자세하게 들으며 놀라움과 슬픔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홀로 힘겹게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들이 700명이 넘는다는 사실에 놀랐고, 불과 얼마 전 혼자 사시던 분이 돌아가신지 일주일 이 되도록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충격과 슬픔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이론적 배움을 실천을 통해 적용하면서 학생들 역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 돕고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참 배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는 교육청과 연계한 지역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활동이었습니다. 지역의 교장 선생님과 학생회장, 자치담당교사 3주체를 초대하여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크 콘서트를 주관하고 진행했습니다.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과정을 통해 자치활동의 중요성을 체감하였고 지역연합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을 다녀보면 여전히 학생자치활동은 많은 장애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주인의식은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지역과 학교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학교는 체계적이고 실제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8) 요리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프로젝트와 함께 성장하며, 학생 시민으로 거듭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미래 시대의 희망을 보다

현재 있는 학교에서 지난해 학생부장을 하면서 코로나와 여러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무기력하게 사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의 폐해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 선명하게 들어났습니다. 학력 격차는 말할 수 없이 커지고, 학습결손을 누적되어 정서적으로 힘든 아이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폭과 선도는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사건 처리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늦은시간까지 학부모 상담을 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역시 아이들의 탈선과 방황과 폭력에는 누적된 결핍의 과정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학생의 심리치료가 필요하여 학교 밖 전문상담가와 연결해서 마음 치료를 받도록 연계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2학년 부장을 하게 되면서 혁신지구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자율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배움이 구체적인 삶으로 연결되면, 미래의 진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고, 미래에 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만나게 된다면 배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즐거움을 찾게 될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결코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거나 미성숙하지 않다는 것을 “요세따” 활동을 하면서 더욱 절실하게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역노인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지역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 아이들이 브리핑을 받으며 많이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살고있는 이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연세가 이렇게 많은데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은 뉴스나 책으로만 배우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서로 회의를 통해 학생이지만 같은 지역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웃인 지역의 노인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며 오랜 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이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공부를 해야겠다는 욕구가 생겼다면 저에게 아침 영어공부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매일같이 아침 8시부터 40분동안 스스로 원해서 즐거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공부 학생들 중에는 1학년 때 학교 주변 21곳의 편의점을 전전하며 물건을 훑치던 아이도 있습니다. 귀공자 같은 자태로 미소를 지으며(작년에는 전혀 웃지를 않았던 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8시가 되면 4층 교무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이 귀한 생명들 때문에 때론 빛의 속도로 자유로를 달리기도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내 자식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작년과 다르게 변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저 고맙고 감사하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아이에겐 이미 그런 씨앗이 있었고, 그 씨앗이 어려움을 딛고 잘 피어나도록 작은 길 안내를 해준 것 뿐이라고, 그리고 한결같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신 어머니 덕분이라고 말씀 나누며 부모님과 제 가슴에는 잠시 따뜻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배움에 대한 욕구는 이렇게 삶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세따” 활동을 하며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고, 어른이 되면 잘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 자신도 잘 살아야겠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들은 누구나 다 잘하고 싶은 욕구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이에게 공부로부터 멀어지게하고, 불안정한 마음의 상태에 직면하게 하지만, 누군가 내미는 따뜻하고 지속가능하며 지혜로운 손길이 있다면 그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변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한결같은 정성과 지속가능한 연민과 사랑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9) 하늘이 저에게 준 교사의 소명을 신명 나게 출을 추듯 살아왔던 교사로서의 인생 보고를 마무리 하면서

혁신 교육 3.0의 시대를 넘어선 지금도 무늬만 혁신학교인 곳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혁신 교육이 시작되면서 교육과 학교가 일정 정도 바뀌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 혁신, 아이들이 처한 문제의 진단과 회복을 위한 인권적인 생활 지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교사회의 문화 기반 조성, 평가방식의 변화, 교육공동체의 권한 분배,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민주적인 학교문화 형성,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통한 위상 정립, 교육주체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 활동까지 교육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 주체의 자발성과 체계성, 지속성이 연계된다면 점차 학교는 지금보다 더 좋은 배움의 공간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교사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헌신과 희생이 있었으며, 학생들의 교육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실천, 그리고 학부모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열악한 교육구조가 개선되고, 올바른 교육적 관점을 가진 교사들이 더 많아지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민과 지속 가능한 사랑이 더해진다면 교육현장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이제 남아 있는 4년의 교단에서의 교사로서의 삶에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교사로서의 삶이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대적 대안이나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승훈이라는 한 인간이 품고 달렸던 교사의 삶은 열정을 넘어 교사니까 나는 그렇게 살거야, 그렇게 살아야해 라는 다짐 속에서 출발한 것이었고, 또 제 안의 DNA가 다른 교사보다 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측은함이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료교사에게 “샘 우리 같이 해봐요” 라는 제안을 할 수는 있고, 또 몇 번 같이 할 수는 있지만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이 철학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지속성을 가질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돌봐주어야 할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교육현실에서 한 명의 아이도 놓지 않고 손잡아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아주 많이 내어주어야 하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도 필요하며,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사로서의 철학과 신념이 늘 함께해야 하기때문에 모든 교사가 지속가능하게 이런 삶을 살아내기란 쉽지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오직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담하며, 교육의 본질에 복무할 수 있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살기엔 학교 현장과 교육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현장에서 실천해왔던 철학과 소신과 신념을 많은 교사들과 공유하며 각자가 선 자리에서 서로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함께 공유하며 생각을 나누고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학습과 배움의 과정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사의 깊은 철학과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 주시고 언제나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의 철학과 인품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며 온갖 다양한 프로젝트를 신명 나게 추진하며 기획할 수 있는 이유도 현재 저희 장성중학교의 훌륭한 두 어른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동료 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직업인을 넘어서야 하며, 올바른 교육철학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끝없는 배움과 나눔의 과정이 쌓이도록 노력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 곁에서 신바람나게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지속성을 담보해 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이들 각자가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아이들이 가진 선한 본성을 살려 훗날 어른이 되어 이웃과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따뜻하고 바른 시민으로 키우는 것은 메뉴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교육하고자 하는 진심과 실천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다시 제 교사로서의 삶을 나눌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지면을 통해 말하지 못한 부분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교사로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훌륭한 분들을 찾아 열심히 살아온 교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부족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물 흐르듯 살아온 교사 인생이지만 써놓고 보니 부끄럽습니다.

아래는 제가 좋아하는 파커J파머의 <가르칠 수 있는 용기>의 글입니다.

“가르치는 행위는 인간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칠 것인가만 이야기했지, 가르치는 ‘누구’ 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제 그 ‘누구’ 를 이야기할 때다.

※ 참고자료 : 2022 교보교육대상(참사람 육성) 오승훈 선생님 추천서

구분	추천사유
추천 배경	<p>정년을 1년 앞두고 있는 고양시 장성중학교의 교장 이선오입니다. 진심을 다해 곡진한 마음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위 교사는 40년 가까이 되는 교육현장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참으로 보기 드문 교사입니다. 때로는 엄한 스승처럼, 때로는 따뜻한 부모처럼, 어떨 때는 친구가 되어 연민과 사랑으로,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로 모든 아이들을 품고 기다리며, 한 명의 아이도 놓지 않고 살리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는 한결 같은 참 스승이기 때문입니다.</p> <p>위 교사는 아침부터 주말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십니다.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해도 충분히 넘치는 분인데 다른 분들의 몇 배나 되는 일들을 매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아이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시며, 열정과 정성으로 교육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예순이 다 되어 가는 나이라 혹여라도 쓰러질까봐 염려가 되어 힘들지 않느냐고 자주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 교사는 하하 웃으며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어가며 하라고 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꺼이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라며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본인의 건강보다 언제나 학생을 위한 일에 두곤 하십니다. 학생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프고 외롭고, 쓸쓸하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상처 많고 정처 없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느라 여념이 없으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학생도 교사도 달려오고 싶은 곳이 학교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p> <p>요즘처럼 세상이 각박해지고 학교현장이 힘들 때는 마음으로라도 아이들을 귀하고 존엄하게 여기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자신이 말한 내용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언제나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오직 아이들을 위해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위 교사 덕분에 학교가 뜨겁게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인 제가 다 고맙고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쉼 없이 아이들을 위해 온갖 일을 다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혹여라도 쓰러질까 봐 늘 애가탈 때가 많습니다. 또 이와 같은 교사가 학교를 떠나면 그 자리를 대신 할 수 있는 교사가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p>

<p>추천 배경</p>	<p>저는 만약 교사에게 주는 합당한 상이 있다면 위와 같은 교사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추천을 해왔습니다. 위 교사는 쑥스러워하며, 이렇게 사는 것은 선생님이기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 상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위한 공적 조서를 써서 상을 받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한사코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교단에서의 인생을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쪽 정리해보면 어떠하겠느냐고 여러 차례 권하였더니 어렵게 추천 마감일 며칠 앞두고 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마치 나의 일인 양 좋았습니다.</p> <p>사실 제가 위 교사와 인연을 맺은지는 2021년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한결같은 삶의 자세와 지속 가능한 실천적 삶의 태도를 보면 저를 만나기 이전의 교사로서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회자되는 선생님의 진정한 교사로서의 삶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횡수로 2년째 함께하고 지켜왔던 위 교사에 대한 추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p> <p>첫 번째 실천 사례 : 아침 8시부터 시작하는 영어공부로 배움에 대한 흥미를 잃고 포기상태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갖게 하고 그로 인해 성적과 학습 의욕이 향상되었으며 자존감까지 회복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울타리가 되어 주고 계십니다.</p> <p>위 교사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고 온 아이들을 위해 계란도 삶아오고, 간식도 챙겨와 함께 먹으며 따뜻한 배움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 학교생활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동안 왜 공부를 놓아버렸는지 이야기도 나누며, 아직도 늦지 않았으며 용기를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p> <p>본교는 동사무소에 등록된 저소득층 자녀가 45명이나 되는 학교입니다. 코로나 이후 양극화의 심화로 무너지는 가정이 더 많아지고 있으니 실제로 어려운 위기에 놓인 아이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위 아이들 중에도 부모의 잦은 싸움과 이혼으로 인해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도 있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께서 가정방문 학습지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하시던 일마저 오랫동안 쉬어야 했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지원 예산은 월세를 내는데도 부족하며 아이를 위해 학원을 보낼 형편이 못 되니 아이의 가슴엔 아픔과 우울이 깊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늘 걱정과 우울이 가득했던 이 아이의 소원 중 하나는 영어와 수학 학원을 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학년 부장을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헤아리던 위 교사는 아침 공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비슷하게 학업을 포기했던 친구들이 하나둘 너도나도 공부하겠다고 모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 기초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p>
------------------	--

<p>추천 배경</p>	<p>언급한 학생은 이 과정을 거치며 영어 기본을 익히고 그 기본을 교과와 연계하여 성실하게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험은 38점에서 두 번째는 77점, 마지막 기말시험에서는 93점을 맞게 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비롯해 가정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자존감까지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 역시 32점에서 마지막 시험 때 88점을 얻게 되었으며 모두 각자의 노력과 그릇만큼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하며 기쁜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적 향상보다 더 기쁜 일은 바닥을 치던 자존감이 살아나 친구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늘 웃으며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p> <p>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수많은 지도사례가 있지만 이렇게 학습성장을 단기간에 이루어내며, 자존감까지 살려내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오래전부터 기초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초학습결손 문제는 해마다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속되는 학습격차와 누적된 학습결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 교육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구조개선보다 더 중요한 건 학교와 교사라고 말하십니다. 한 명의 아이라도 살려보겠다는 지극한 정성을 바탕으로 제자와 스승 간의 좋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면서 학습을 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성이 없는 기계적인 만남과 관계는 오래전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결코 넘어설 수 없기때문에, 교사도 아이도 몇 번 하다가 다시 또 주저앉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p> <p>결국 위 교사는 아이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 그리고 지속 가능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게 된 것입니다. 이전 학교에서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이들과 아침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위 교사를 잘 따르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 공부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교사의 학생 지도법을 곰곰 생각해보면 모든 아이들을 귀하게 존중하며, 한결같은 자세로 아이들을 대하고, 무슨 일을 해도 지속가능하게 정성을 다하는 교사로서의 삶의 자세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장인 나를 비롯하여 주변 동료 교사들은 아침도 먹지 않고 공부를 하겠다고 꾸준히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이 너무 기특하고, 교사의 정성에 감동하여 빵이며, 간식들을 지원해주기도 하였습니다.</p> <p>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의 사랑을 온몸에 받으며 사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존감의 회복은 아이들에게 환한 웃음을 가져다 주었으며, 당당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시작으로 포기과 좌절에 빠진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위 학생 가운데 한 명에게는 지난해 중반부터 매달 5만원의 학습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 전 인생에 걸쳐 단 한 사람의 인생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 한 일입니다.</p>
------------------	---

<p>추천 배경</p>	<p><u>두 번째 실천사례 : ‘요리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동아리’ 활동으로 지역의 어렵고 쓸쓸하신 독거노인 분들께 따뜻한 행복도시락을 배달하며, 학교에서의 배움이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실천하시며 학생 역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 공동체 삶의 소중함에 대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좋은 배움과 실천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u></p> <p>위 선생님은 바쁜 와중에 고양시 혁신 교육 지구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공모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아침에도 일찍 등교하며 아침 공부를 지도하면서, 수업이 끝난 후에도 늦게까지 남아 학생들이 다양한 배움을 통해 폭넓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느라 늘 바쁘십니다. 학교와 학원, 게임과 핸드폰에 매여 사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아이들을 둘러싼 경쟁구조와 가정환경은 쉽게 바꿀 수 없으니 학교에서라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p> <p>다양한 경험이 다양한 인생의 선택지를 만나게 해주고, 그 경험의 누적을 통해 미래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은지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창의적인 상상력도 다양한 세상과의 수많은 만남이 있어야 꿈틀거리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다양하게 만날 세상을 연결해주기 위해 늘 바쁘십니다. 또한 그런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학교 예산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수많은 공모사업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계획서를 절절하게 써서 예산을 받아 오십니다. 그 예산으로 동료 교사와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살아 움직이게 하며,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p> <p>교장인 제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닙니다. 제발 건강 생각하며 쉬어가며 하라고 하는데도 주말까지 한 학급 정도의 아이들과 모여 가사실에서 요리를 하십니다. 마음도 몸도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시며, 당뇨가 심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지역의 할머니들께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코로나로 어려운 지난해에도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내며 도시락 배달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코로나로 밖에도 나가지 못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시겠느냐며 곳곳하게 아무 사고 없이 도시락 배달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며, 하늘도 위 교사와 학생들의 선한 마음과 정성을 알아 활동하는 모든 학생들이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p> <p><u>요새따 자율동아리 활동의 슬로건은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자”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입니다. 얼마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문구인지요</u>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사회와 학교에서 인간중심의 철학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 배움을 실천으로 이어가도록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p>
------------------	--

<p>추천 배경</p>	<p>이 활동은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사님의 도움으로 독거노인 분들과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주민과 학부모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주체가 함께 모여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지역 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우리 이웃 중에는 쓸쓸하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며 동시에 자신들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입니다.</p> <p>학생들은 활동하며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통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위해 우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대안에 대해 고민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교육 주체와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도 하며, 따뜻한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들고 배달을 나가는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멋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감동으로 눈시울이 시큰해지곤 합니다. 이 활동은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배움과 실천의 체화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주시는 위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 활동의 백미는 이 활동하는 학생들 가운데 아동폭력에 노출된 아이도 있고, 성장 기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아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있으며, 이 친구들이 이 활동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p> <p>세 번째 실천사례 : 학교 정원 가꾸기와 청송관 뒤 텃밭 가꾸기 활동을 통한 노작교육으로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자연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가진 선한 본성을 회복하게 하고 있습니다.</p> <p>2020년 제1 교장으로 오기 전부터 경쟁공부에 노출되어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학교 현관 앞 화분에 다양한 색깔의 야생화를 심고, 청송관 뒤 텃밭에는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어 오셨습니다. 예산 역시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고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주말이면 학교에 나와 야생화도 심고, 모종도 심고 씨앗도 뿌리며 자연과 함께하는 과정을 만나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누군가는 생명의 신비에 빠져 생명을 키우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를 것이고, 누군가는 도시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도시정원사가 되기도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유기농 농법으로 야채를 가꾸어 만민에게 건강한 식탁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농부가 될지도 모를 일이라며 아이들에게 미래 시대를 살아갈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 서라도 다양한 선택지를 주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는 교사입니다.</p> <p>학생들은 어른보다 더 바쁘다고 합니다. 방과 후와 주말엔 늘 학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모이지 않아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선생님 결엔 늘 아이들이 있습니다. 뭘 해보자고 제안하면 너도나도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끔 물어보곤 했습니다. 주말까지 나오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아이들은 즐겁다고 대답합니다. 주말이면 쉬고 싶고, 학원도 가야함에도 언제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선순위는 학교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스스로 선택했고 친구들과 함께하니 모든 활동이 즐겁고 의미있다고 합니다.</p>
------------------	--

<p>추천 배경</p>	<p>이 아이들 덕분에 학교가 아름다워졌습니다. 아침 점심, 주말까지 조를 짜서 스스로 물을 주기 때문에 꽃이 목마르지 않아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장성중 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학교를 한 바퀴 돌면서 꽃 구경도 하고, 향기도 맡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송관 뒤 야채는 도시락 배달할 때 요리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확하여 학생들이 집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장성 모든 가족들도 누구든지 오며 가며 상추나 썩갠 수확해서 가지고 가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에는 위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장으로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에게 늘 색색의 꽃을 보도록 해주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습니다.</p> <p>네 번 째 실천사례 : 연극과 뮤지컬 관람 등의 문화예술 공연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감수성 함양을 위한 길을 열어 주고 계십니다.</p> <p>선생님은 늘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이 종합교육인 무대공연이나 문화예술과의 만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럽에선 한 학기가 끝나면 모든 교과를 연계하여 무대장치를 만들고, 음향과 분장, 대사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고 합니다. 교과 간의 분절을 넘어 융합으로 배움의 총체적인 과정을 무대공연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준비엔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진짜 살아 있는 교육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 교사가 늘 주장하는 문화예술과의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교사는 오래전에 과주에서 교육 활동을 하실때에도 사고몽치라고 불리우는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연극을 하셨으며 그 아이들을 인솔해서 일 년에 서너 번씩 대학로에 나가 주변을 탐방하고 좋은 공연들을 많이 보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각자 인생의 운명을 만나기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p> <p>선생님께서서는 항상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넘어서서 다양한 선택지를 만나게 해주는 교사와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넓은 세상이 모두 학교라고 하십니다.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는 삶이 일상인 우리 아이들이 좋은 공연을 보게 되면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어질 때도 있을 것이며, 친구와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우정을 더 깊게 다지기도 하고, 연극이나 뮤지컬 관람을 통해 가슴이 찡하고 울리는 감동을받아 배우가 되거나, 음향이나 분장, 무대장치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상상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학생들을 학교에 가두어놓고 늘 같은 벽돌을 찍어 내는 것처럼 획일화시키는 배움의 과정이 아이들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게 하기때문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삶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또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은 학교 교육의 질적인 전환을 위해 교육과정을 다양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과 지역과 사회와 넓은 세상과 마주하게 하도록 해주는 과정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도 어김없이 매달 전교생에게 신청을 받아 30명에서 70명까지 한 소대를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인솔하십니다. 대학로와 세종문화회관 등을 누비며 평생 잊지 못할 좋은 공연들을 보면서 수많은 상황에 노출된 아이들의 내면의 정서가 조금씩 조금씩 따듯한 강물이 되어 흐르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행복해하십니다.</p>
------------------	---

<p>추천 배경</p>	<p>우리 아이들 역시 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대학로에 가서 친구들과 맛집을 찾아 식사를 하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다양한 장르의 뮤지컬과 연극을 보는 게 너무나 즐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p>
	<p>다섯 번째 사례 : 사춘기의 절정을 달리는 중학교 2학년 학년부장으로 7개 학급의 담임교사가 바로 자신이라며, 각 반의 위기 상황에 노출된 아이들을 담임교사를 도와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마음을 헤아리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잘 못을 깨달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준엄하면서도 따뜻하게 품고 기다리며 힘든 아이들의 손을 지속적으로 잡아주고 계십니다.</p> <p>갈수록 위기에 노출된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상황과 아이의 삶의 맥락 속에 누적된 결핍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부모도 포기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이들이 학교 공간 속에 점차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제대로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교사에게 있지만 다들 주어진 일들이 너무 많아 버거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되는 학생들의 행동반경의 스펙트럼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의 수가 놀랍도록 많습니다.</p> <p>그런데 위 교사는 아이들의 일탈과 사건 사고의 본질에는 사회와 어른의 책임도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고 친 후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는 들을 수 없는 아이들의 상황이 너무나 많다고 하십니다. 아직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아이가 그런 악조건을 견디며 여기까지 버티고 살아가는게 참으로 눈물겹다고 하시며 가슴 아파 하십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문제를 학교가 교사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안이 발생하면 아이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아이 정서 상태에 대한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헤아림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른인 우리는, 교사인 우리는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끝까지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는 부모가 함께 알고 공동으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대부분 어머니의 손에서 정리가 되거나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p> <p>하여 사안이 지속되거나 심각해지면 늘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관련 교사들과 학부모(엄마,아빠)와 아이까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드십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모도 먹고 사느라 일을 하셔야 하니 바쁘고, 아이들은 또 학원다니느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혹은 아이가 누적된 결핍으로 인해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지속되면, 부모도 점점 무더져서 자녀를 포기 또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와 자식간에 무너진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모와 자녀 간에, 담임교사와 제자 간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들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통해 서로 헤아려주지 못했던 마음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면 눈물도 흘리게 되면서 화해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있었다고 아이가 가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부모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p>

	<p>아이들 역시 오랫동안 진지하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읽으면서 부모에 대한 미안함을 갖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깨닫는 경우도 보았습니다.</p> <p>결국 이런 상황에 노출된 아이들은 이 중재와 화해의 과정을 통해 부모와 선생님이 자신을 염려하며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바쁘게 사느라 놓쳐버린 관계의 회복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어른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기계적인 사안 처리로 끝나는 것을 넘어서서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여주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끝까지 들어봐 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와 교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아이는 부모와 교사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마음에 응어리가 남지 않아 다음에 또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아이들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는 것이며,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성장과정과 삶의 단계마다 그에 맞는 부모와 어른의 적절한 조언과 사랑이 당연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위 선생님께서 하고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이유가 오직 이 아이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세상의 부모와 어른들은 뼈아픈 마음으로 다시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p>
<p>추천 배경</p>	<p><u>여섯 번째 실천 사례 : 학생을 통제와 지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배움과 삶의 자율적 주체이자 책임의 존재로 바라보며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결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성 함양 교육을 통해 민주적이며 자치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u></p> <p>학교는 민주시민을 키우는 곳이며,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학교의 공동주인인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잘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할 말은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학교이므로 학생들의 인권과 복지, 건강과 안전, 평화와 행복을 위해 학생회를 중심으로 모든 학생들이 함께 협력해서 자치적인 문화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학교는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고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위 교사는 오래 전부터 경기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단 역할을 하며 경기도의 수많은 학교 교사와 학생 대상으로 자치에 대한 강의를 해 오셨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자치, 학급자치 등의 메뉴얼을 공동으로 다수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학생을 학교의 공동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경기도의 많은 학교의 학생회 아이들과 700회 이상의 강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학생은 교사가 우려하는 것 이상의 놀랄만한 능력들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학생을 교사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p>

<p>추천 배경</p>	<p>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능력들을 잘 꽃피울 수 있도록 학교는, 모든 교사는 민주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공부와 만남을 통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철학으로 다져진 관점이라 위 교사와 매일같이 대화를 나누며 교장이기 이전에 교사로 살아왔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공감도 하고 때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오직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우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뿐입니다. 학교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성찰과 사유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p> <p>일곱 번째 실천 사례 : 경기도 내 교사들의 성장 지원과 철학 정립을 위해 학교너머행복공작소 연구회를 15년 넘게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연수원과 연계한 직무연수 30시간을 15년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p> <p>교사는 끝없이 공부하며 성장해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 하십니다. 아이들은 늘 새로운 문명을 교사보다 더 빠르게 흡수하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가장 변하지 않는게 학교이며 교사라고 하십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자신이 경험한 세계,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온 가치관의 세계를 넘지 못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위한 연구도 매우 중요하지만 학교와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하며, 교육부나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의 방향과 세계의 교육적 변화에도 귀를 열고 보고 듣고 배워야 한다고 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사의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깊은가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선택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입시 중심의 경쟁교육을 넘어서서 한 시대의 주인으로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시민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철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학교가 바쁘기도 하지만 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를 교사가 폭넓게 해야 한다고 교장인 저 역시 늘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교사는 매년 경기도 교육연수원과 연계하여 위탁 직무연수 30시간을 15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회 활동을 통해 본인 역시 매달 책을 읽고 나누며, 책을 통해 배운 것은 바로 실천으로 연결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민주시민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교사 자신이 민주시민으로 살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p> <p>이 외에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의 실천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야생화 심기, 교사와 제자가 함께 오이소박이 만들기, 각 학년 각 반의 위기에 놓인 학생들 전문상담사와 연결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학폭이나 선도 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전문상담사와 연계하여 마음 회복해주기 등 다양한 일들을 학년부장님들과 담임교사와 의논하여 지속적으로 묵묵히 해내고 계십니다. 매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p>
------------------	---

<p>추천 배경</p>	<p>위와 같은 교사로 살기가 무척이나 힘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 자신도 평교사 시절 모든 아이들을 위해 내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었지만 위 교사의 철학적이며 실천적이며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노출된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이 걱정 많은 세상에서 위와 같은 교사가 학교 현장엔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산적한 공교육의 문제는 쉽게 해결 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정처 없고 상처 많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2년간 실제로 보고 느끼고 있으니깐요.</p> <p>위와 같은 교사가 존중받고 대접받는 세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기업인 교보문고가 오랜 세월동안 이런 교사를 발굴하기 위해 애쓰고 응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내가 교장으로 있는 학교에서 이런 분을 만나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며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직 추천을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두서없는 글이지만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담아봤습니다.</p> <p>부족하고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오승훈 선생님께서 30년이 넘도록 실천해오신 교육 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실사를 나오시면 그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민족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교보문고에 감사드립니다.</p> <p>추천자 : 장성중학교 교장 이선오 드림</p>
------------------	--